



**[ (사)한국물류협회  
창립20주년기념 기획인터뷰5 ]**

**INTERVIEW**

**서 병 룬**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회장

「한국의 대표적이고  
중심적 물류단체로의 성장에 보람 느껴」

(사)한국물류협회는 지난 1984년 9월 1일 한국물류관리연구원을 시작으로 20여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많은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

그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는 지금의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이 항상 있었다.

그간 한국물류협회의 발전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국물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 중의 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 Asian-Pacific Logistics Federation) 회장을 겸임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물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물류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기획인터뷰의 그 다섯번째로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을 만나보았다.

- (사)한국물류협회가 오는 9월 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협회 회장으로서 물류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물류협회의 전신인 한국물류관리연구원(KIPDM)이 1984년 9월 1일 창립한 이후 (사)한국물류관리협회(KCLM)를 거쳐 (사)한국물류협회(KLA)에 이르기까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시절에 우리 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스스로 물류조직을 만들게 하고, 다양한 물류 관련 전문 사업도 많이 등장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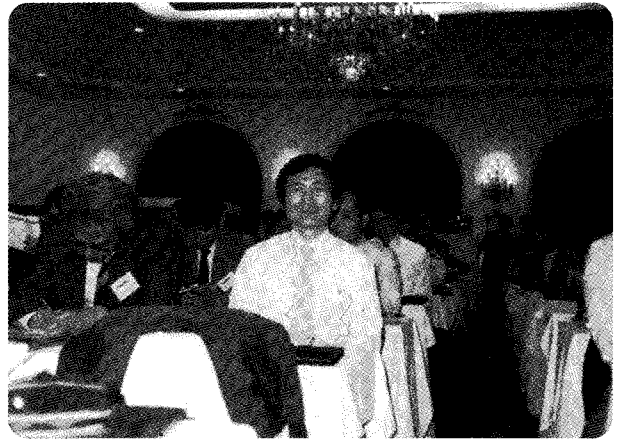
현 정부도 물류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물류부문의 선진화를 향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물류협회가 그 중심에서 노력하고, 한국의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물류단체로 성장한 것에 대해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물류협회가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어려운점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회원사들이 물류협회의 회원과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20년동안 물류협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우리 물류협회를 성원해 주신 물류업계 및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정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할 일이 많



1987년 국제 동경물류 심포지움에 참석한 서병륜 회장

이 산적해 있고, 또 협회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의 도움은 물론, 제조업, 유통업 등 화주업체, 물류업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물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지난 20년 동안 한국물류협회는 물류업계 및 학계의 선진화와 권익대변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물류협회가 물류부문의 선진화와 권익대변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회의 다양한 활동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부족한 부

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물류협회의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주업체와 물류업체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 우리 물류협회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물류협회 회원사가 3년 이내에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 중심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의 공동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협의 창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의 회장이기도 한 회장님은 최근 아시아의 물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회장님은 아시아의 물류발전을 위해 APLF를 통해 어떤 활동들을 펼치실 계획이십니까?



제4기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임원단 일동

▶제가 작년 10월에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물류사정을 살펴보면, 국가간의 물류수준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은 각국의 물류수준이 비교적 평준화되어 있어 큰 격차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류선진국인 일본이 있는가 하면, 아직 물류수준이 낮은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듯이 그 격차가 큰 편입니다.

또, 중국이 경제발전에 따라서 물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간 물류기술의 수준차가 심해, 무엇을 어느 수준에 맞춰 추진해야 할 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는 각 국가의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물류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체계가 미약하므로, 국가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의 프로그램 추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역내의 물자교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호간 물자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공동의 물류표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물류표준화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파렛트를 중심으로 한 랙, 컨테이너, 차량 등 운송, 보관, 하역장비 등의 물류설비를 비롯하여, 물류제반시설 등의 표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물류표준화를 위해 힘을 모을 생각입니다.

- 정부는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는 사회 간접 자본시설인, 항만이나 고속도로건설, 철도의 화물수송체계 구축 등에 대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류는 국감물류뿐만 아니라 산업물류를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물류에서도 물류기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화주기업단위의 개별물류, 이른바 자가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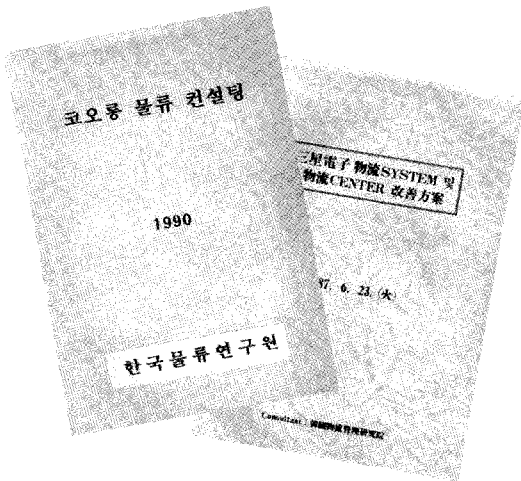
따라서, 화주기업이 물류부문을 물류전문업체에 맡기는 물류아웃소싱 활성화와 공동물류 시스템화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연구와 정책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는 단독기업으로 해서는 비용만 많이 들고, 효율이 저하 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물류아웃소싱 확대와 산업단지의 물류공동화시스템 구축 등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표준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화를 90%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물류협회의 창립 뿐만이 아니라, 물류와 일평생을 같이 해 오신 회장님께서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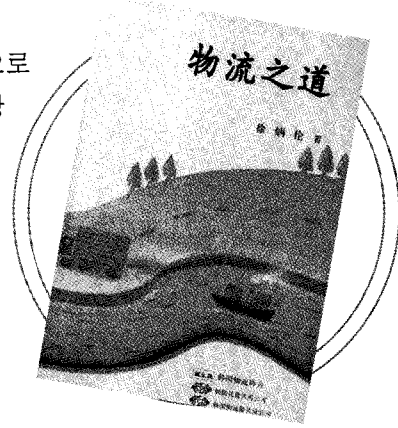


▶여러 활동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은 30여개 화주기업의 물류컨설팅을 한 것입니다.

물류초창기, 국내 물류컨설팅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시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여개 기업을 제가 직접 컨설팅 하면서 물류관심의 고조유도 내지 방향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한국의 물류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물류컨설팅을 해 온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서회장님은 물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신을 “물류의 길”이라는 책자로 집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중국어판, 영어판으로도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의 길’이라는 제목처럼 지금의 20~30대 물류종사자들이 지향해야 할 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류는 앞으로 중요하게 성장할 새로운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물류분야의 가능성을 믿고 이 분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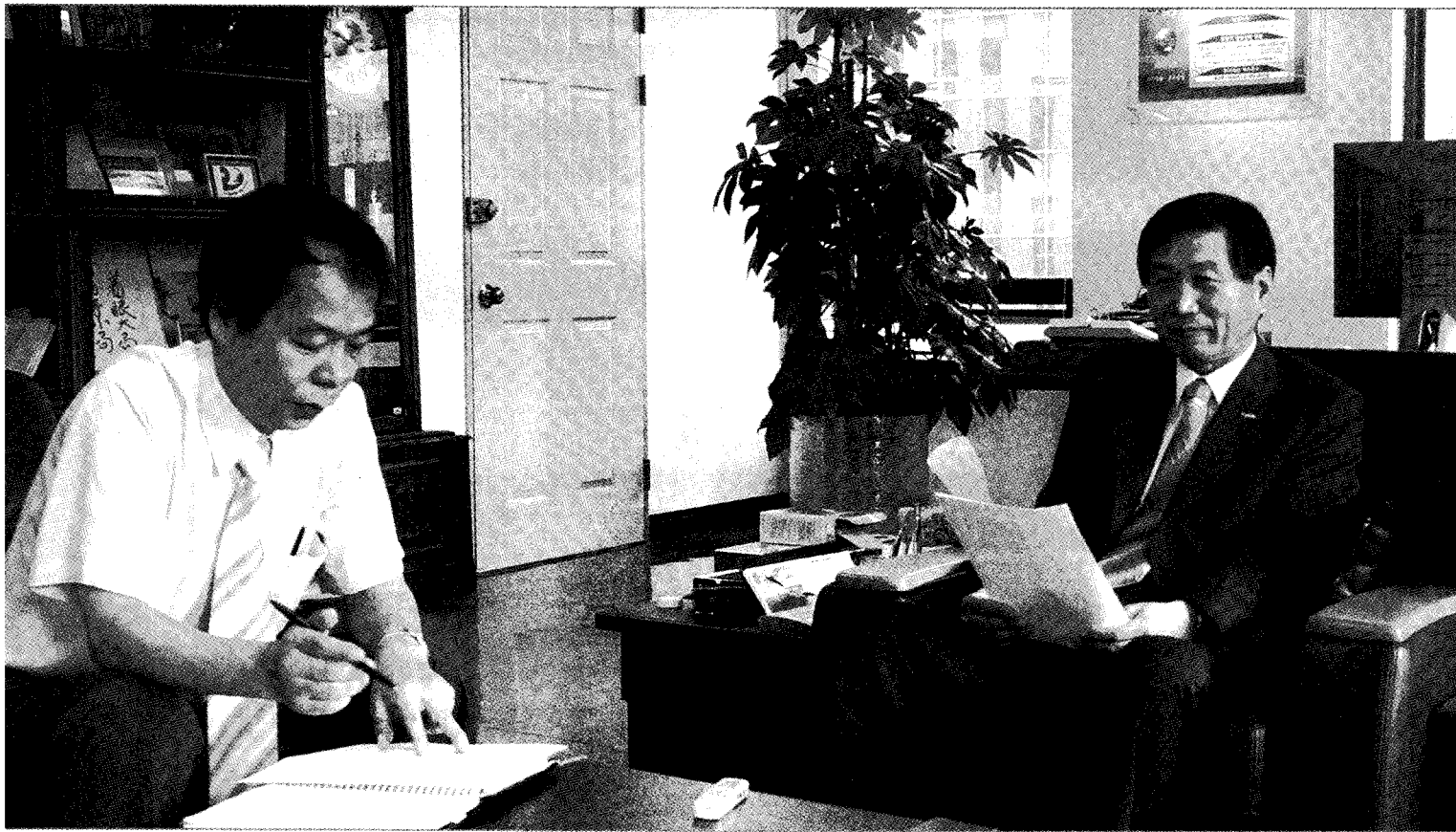
특히, 물류는 최첨단 물류기술 도입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분야인 바, 젊음의 마인드로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류컨설턴트의 양성은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의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물류전문 컨설턴트 천여명 정도가 열성적으로 활동한다면 물류의 선진화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젊은분들이 물류전문컨설턴트가 되어 선진 정보기술과 물류현장실습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업계의 리더그룹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회장님은 지난 1985년 한국파렛트풀(주)를 설립하면서, 물류사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파렛트풀(주)를 포함해 한국컨테이너 풀(주), 한국로지스풀(주) 등 3개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로지스올 그룹으로 성장시켜 오셨는데, 로지스올 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류활동을 하면서 눈여겨 본 것은 물자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파렛트, 컨테이너를 이용한 유닛로드 시스템 실현으로, 우리나라 전체 물자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985년 10월에 한국파렛트렌탈(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파렛트풀(주)와 한국컨테이너풀(주)는 파렛트나 컨테이너 용기를 표준화해서 이를 수많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1000만매의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5만개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물류 공동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물류사업을 병행해서 한국의 유닛로드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물류체인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해외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사)한국물류협회 2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4일, 5일 양일간 기념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물류협회가 창립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이 있기에 오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4일, 5일 양일간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물류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주요 물류인사를 초청하여 국제 물류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금년도 한국물류대상 수상식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제 물류심포지움의 경우 물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한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해외 귀빈을 다수 초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물류협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한국물류협회 20년사'를 발간하고, 물류와 관련된 외국서적 중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책을 번역하여 출판할 예정입니다.

- 그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한국물류협회 회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물류와 관련된 단체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이원화 되어있던 일본 물류관련단체에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현재의 JILS(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은 20여년 동안 물류관련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난립해 있었습니다.

그 후 1992년 일본정부의 대통합 권유와 함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단법인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JIL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여기저기서 물류단체가 설립되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한국물류협회를 중심으로하여, 국내 여러 물류관련단체의 통합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물류협회는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종합적인 인가를 받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 〈서병륜 회장 약력〉

#### 1.소속 및 지위 :

- (1)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회장
- (2)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회장
- (3)한국파렛트폴(주) 대표이사,  
한국컨테이너폴(주) 대표이사  
한국로지스폴(주) 대표이사

#### 2.학력 :

- (1)서울대학교 졸업
- (2)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3)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

#### 3.약력 :

- (1)1984.09. 한국물류연구원 설립, 원장 취임
- (2)1985.10. 한국파렛트폴(주)설립, 대표이사 취임(현)
- (3)1988.07.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설립,  
초대사무국장 역임, 회장(현)
- (4)1996.05. 사단법인 한국파렛트협회 설립, 부회장(현)
- (8)1996.11. 한국컨테이너폴(주), 대표이사 취임(현)
- (9)2003.10.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F) 회장(현)

#### 4. 저서 :

- (1)『PALLETIZATION』1980. 대우중공업(주)
- (2)『물류표준화 가이드』1994. 대한상공회의소
- (3)『物流의 길』2000. 물류신문사 (국문판, 영문판, 중문판)

#### 5. 수상 :

2004.04.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최고경영자상

#### 6.물류컨설팅 :

삼성전자, 롯데칠성음료, 코오롱, 미원 등 27개 회사의  
물류컨설팅 용역 수행